

성도의 벗 9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зра 테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쿱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딘
렉스 디 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퍼리

차 례

“그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

자녀가 자신을

좋아하게 해줌제임즈 엠 해리스..... 10

질의 응답 15

장막을 통하여레이 제이 스넬슨..... 18

그리스도와 창조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 21

시간이라는 덧일루이즈 벨..... 34

봉사에의 부름존 에이 트베튼스..... 40

몰모나드 41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릴리 바튼 클라크..... 42

해초를 따는 소년나네프 라슨..... 43

거울 맞추기로버타 엘 페어롤..... 47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패트 그레이엄..... 48

해외 소식 50

지역 소식 52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वाद/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17호, 제19권 제9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데이비드 씨 버틀러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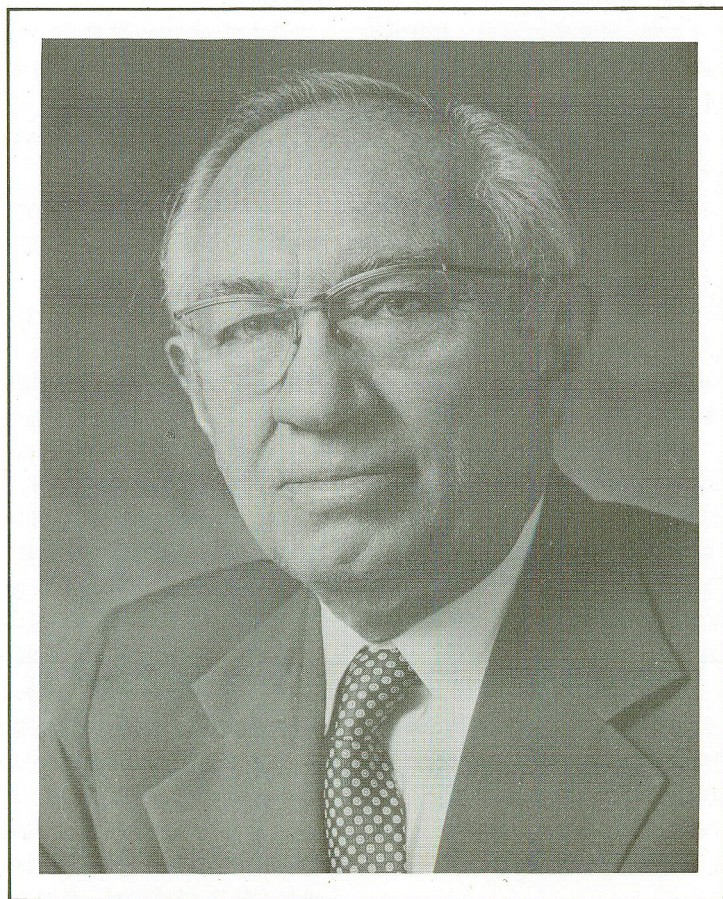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1AKO PRINTED IN SEOUL, KOREA 9/83 International magazine

© 198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주

“그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일마 전에 나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신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삭빠른 논리로 기록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유능한 신교의 평회원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래된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 온 신학자들이 제기한 의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삭제해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제기해 온 질문은 수없이 기독교회를 분리시켜 온 연조가 깊은 질문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진리의 원천으로써 성경을 보지만 그들의 성경에는 이상한 사건에 관한 당혹스러운 내용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신화를 제거해 버렸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경전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새 경향은 ‘비종교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철학적인 체제에 근거를 둔 신앙입니다.”(포튼, 1965년 12월, 173페이지) 따라서 현대의 일부 신학자들은 주님에게서 신성을 제거하려고 했으며 그리고는 왜 사람들이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가 하고 의아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의 외투를 벗겨 버리려고 했으며 그들의 추종자들의 눈에 단지 한 인간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한정된 사상에 적합하게 바꾸려 합니다. 그들은 그런 과정에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강탈했으며 이 세상의 올바른 왕을 찬탈했습니다.

이런 매우 효과적으로 성경의 있는 그

대로의 신성한 의미를 제거하는 과정과 이 과정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의 신앙, 특히 이런 거짓된 영향력을 받은 모든 층의 젊은이에게 미치는 분명한 영향을 읽고 있는 동안 선지자 아모스가 옛날에 하신 말씀이 다시 분명하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 같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언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아모스 8 : 11-14)

이런 말씀이 오늘날의 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특히 젊은이들이 마음속으로 만족시켜 줄 신앙에 굽주렸으나 그것이 주어지는 방식 때문에 “갈하여 피곤하리라……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 (아모스 8 : 14)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엄숙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가 생명을 갖고 계시지 않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며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출생과 성역과 사망과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6)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행 4:12)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우리가 신세계에 대한 간증으로 믿는 물몬경은 옛날에 이 서반구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신성에 대한 또 하나의 간증이며 강력한 증거입니다. 1,500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던 예언자가 기록한 이 책의 서문에는 이 책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계시의 책인 교리와 성약에서는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당신의 위치를 밝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교성 19:1)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구속주께서 지불하신 다음과 같은 무서운 대가를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깃세마네에서의 고난, 재판을 받으실 때의 심한 조롱, 육신의 살을 찢은 잔악한 가시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고 빌라도에게 외치는 무리의 함성,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외롭고 힘든 발걸음,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을 때의 무서운 고통, 그 무서운 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에 가해지는 무서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눅 23:34)

십자가는 그를 고문하는 도구였으며 평강의 왕을 죽이기 위하여 고안한 무서운 기구였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기적적인 사업에 대한 악독한 대가였습니다. 그분은 골고다의 외로운 산꼭대기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리 희생물로써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대인 안식일 하루 전에 그의 생명이 없는 육신을 내려서 빌린 무덤에 급하게 안치할 때 그 어두운 밤의 암흑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그분의 가장 진실하고 잘 아는 제자들의 희망까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메시야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동경과 신앙과 소망을 걸었던 그들의 구세주께서 가신 것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이 이제는 그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분명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난에 찬 짧은 그분의 인생의 끝이 온 것입니다. 그 생애는 오래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이사야 53 : 3, 5) 이제 그분은 가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달력으로 토요일인 유대인의 안식일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사망에 대하여 생각할 때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 주님의 안식일인 일요일이 왔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무덤에 온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 24 : 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 : 6) 인간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그분은 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 : 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해하기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3일만에 권세와 미와 생명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모든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모든 세대의 인간에게 “아담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에서는 그분은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무덤으로부터 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유다가 배반한 슬픈 결과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 텅 빈 무덤은 그분의 신성애 대한 간증이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되고 옴의 대답없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사람

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 14 : 14)

그분은 돌아가심으로 해서 잊혀졌거나 기껏해야 그의 생애가 역사책에 단 몇 줄로 나타나는 수많은 훌륭한 선생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들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이사야와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 : 6)

옴의 다음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욥 19 : 25-27)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람오니여”(요 20 : 16)라고 외친 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진실로 생명의 주인일 뿐 아니라 죽은 그 차체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은 사라졌으며 무덤의 승리는 깨어졌습니다. 겁많은 베드로는 변형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경배하는 가운데 인식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 20 : 28)라고 외쳤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 : 27)는 말씀은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이 하신 잇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기록한 대로 “오백 여 형제에게 일시에”(고전 15 : 16) 나타나신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



나셨습니다.

또한 서반구에서는 그가 이전에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소리가 들릴 때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으니……

“소리가 우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

“보라 저들이 봄에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우리 가운데 서심에……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일어나 내게로 와서”(니삼 11 : 6, 7, 8 - 10, 14)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다음에는 이 훌륭한 물문경 기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고대 아메리카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성역의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인류의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 즉 예언된 때가 충만하게 된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시 오셨기 때문에 현대의 증인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현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 계신 주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고대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 그대로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히 12 : 1) 나타났습니다. 이 시현을 받은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엄숙한 말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16 : 22-24)

우리 말일성도는 성령의 권세에 의하여 주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엄숙한 간증을 해 왔으며 현재 간증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증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증거를 갖고 다시 신앙과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극적이며 목표없는 지적인 방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사람들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20세기에 낡은 구식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위대한 과학 및 기술 시대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를 통털어 과거에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보다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 시기는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오늘날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생명의 본질과 그 창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이 위대한 생물학 및 의학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탄생하신 기적이 심지어는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믿을 만한 것이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구를 창조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계시던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약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죽



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세기에는 이런 일을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매일 일어나고 있는 병고침과 회복의 기적을 보면서 그런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까?

거실에 앉아서 우주 비행사가 달 위를 산책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승천이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기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기적의 시대입니다. 나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모

든 조상이 지난 6천 년 동안에 함께 달성한 것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매일매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의 관심을 가진 친구들에게 주님에 대한 증거는 인간이 달성한 것을 목격함으로써 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것을 관찰하면 그분의 탄생, 생활, 사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인 것으로만 들어 줍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구속주로서 주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위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열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와 열성은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높은 교육을 받거나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서적만을 읽음으로써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좀더 확실한 과정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전 2:11 참조)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주님에 대한 이해와 열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개념상 초보적인 것이며 반복하기에 단조로울 정도이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며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합니다.

첫 단계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

을 읽는다면 이해와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는 훌륭한 경험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들 조용한 확신과 함께 그분의 말씀이 올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써 나온 신세계의 성약인 물몬경을 읽으십시오. (물몬경, 서문)

둘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20)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아마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은 듣지 못하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롭고 확실한 확신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육체적인 힘과 같습니다. 이것은 팔의 근육과 같습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할 때만 커집니다.

시간과 재능을 바쳐 봉사하는 동안 신앙이 자라고 의심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 함인지 알리라.” (요 7:17) 또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그분의 위대한 대업을 위하여 자신을 잊을 때 자신을 찾고 진리를 찾게 된다고 선포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6,8) 우리는 노력하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되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약속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그분의 대업을 위하여 봉사하면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철학의 혼란과 비판과 오늘날의 부정적인 신학을 뚫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신으로 태어나사 무덤에서 부활하신 세상의 구속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하여 오실 주님이시라는 성령의 증거가 빛나게 올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찾아 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활에 적용하여 인간이 알아야 할 위대한 진리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 언제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도와 줄 수 있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그가 약속된 메시아로서 지상을 거니셨으며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자로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간증을 덧붙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단 하나 확실한 희망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가정 복음 교육 토론시에 이러한 요점을 토론할 수 있다.

1. 이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습니다.
2.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물문경은 주님의 신성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3.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이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4. 부활에 대한 고대의 증거 이외에도 현대의 증거가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현과 계시 및 성령의 권세에 의한 수백만 명의 증거가 주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엄숙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5. 주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규칙을 따름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 네 가지는 경전 읽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주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 그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좋아하게 해줌

제임즈 엠 해리스

존과 데이빗은 아홉 살 동갑내기이며 서로 좋은 친구입니다. 둘은 체격이 비슷했으나 축구장에서의 행동은 두 소년이 서로 아주 다르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존은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반면 데이빗은 운동장 한 옆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은 경기를 할 때 기여코 득점하고 말겠다는 결의를 보입니다. 그러나 데이빗은 어쩌다 경기를 해도 득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므로 한번도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 소년의 서로 다른 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존은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 열의를 갖고 시작하여 잘할 것을 기대합니다. 데이빗은 일반적으로 비관적이며 혹시 실패할 일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자신에 대한 견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는 낙관적인 태도와 자신감 및 성공할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내다봅니다. 자부심이 낮은 어린이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불신하기 쉬우며 인생의 여러 환경에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자신이 사랑스럽고 유능하다고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 자부심이 증진됩니다. 반대로 이런 느낌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자부심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공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자부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자녀에게 그들의 영적인 시작과 그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하여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 점점 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육체적인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 듯이 그들 내부에는 점점 더 그분과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2. 약점이나 결점을 작게 느끼도록 도와 주면서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가 똑같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유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자기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어떤 으리으리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 가운데 하나를 “정말로 어리석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있는 자리에서 손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스러운 것은 그 딸이 어머니의 말을 믿고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자녀는 부모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믿습니다. 자녀가 어떤 결함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의 자부심을 키워 주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용모이지만 밝은 미소와 밝은 성격을 지닌 소녀라든지 눈은 멀었지만 학문에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소년 등과 같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에게는 대개 그들을 경멸하거나 축근하게 대하지 않고 가치와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는 따듯하고 사랑이 넘친 가정 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와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말고 자녀의 개인적인 힘에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주디는 부모에게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습니 다. 그녀는 정규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신학 연구원 중등부 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했으며 훌륭하고 활동적인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 패티는 부모에게 있어서 전혀 대조가 되는 많은 말썽을 일으켰습니 다.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했으며 계속해서 교사와의 문제를 일으켰 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등록했

으나 수업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대해 비활동적이며 그 소중한 가치를 비판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패티는 좋은 면에서 관심을 끄는 일에 있어서는 언니를 앞지를 가능성이 적었으므로 무의식 중에 다른 면에서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불행히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녀의 언니를 예로 들으로써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패티는 “한 개인이 되고 싶다.”는 강한 욕구 때문에 반항하지만 자신의 품행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따라서 자부심이 몹시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족 가운데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왜 너는 존처럼 될 수 없니?” 또는 “산드라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할거야!” 라는 등의 말로 공공연하게 의도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 자신도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매우 미묘한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 메시지는 “너는 네 형이나 누이만큼 사랑스럽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라는 의미로 이해될 때가 흔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어린이가 따를 적극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자부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개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자녀가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부모의 한 가지 역할은 자녀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능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과정은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 일은 자녀가 매우 어릴 때 시작됩

니다. 그는 새로운 과제를 배울 때 그것을 반복해서 몇 번이고 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억제당할 때의 좌절감을 큰 소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써 앤더슨 부인은 훗날 지난 딸 캐더린이 침대에서 옷을 벗길 때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딸이 스스로 양말을 벗도록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양말을 잡아당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양말을 신겨 주고 캐더린이 벗게 한 후에야 다시 명랑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느끼려는 욕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자녀를 위한 모든 일을 다 하는 부모는 선한 동기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은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동기는 측은한 생각이나 자녀를 모든 역경과 불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품행이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며 희생적인가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배척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있어서 자신이 없으면 안될 사람으로 만들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행하든 그 잠재적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의타심, 자신감의 결여, 창의력과 솔선 수범의 결핍, 자부심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계속해서 함으로써 의타심이 방종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 방종은 시중반을 “권리”를 주장하는 방면으로 진전하여 어린이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가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한

다는 느낌을 갖도록 북돋아 주십시오. 한 친구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전기 기사가 집에 배선 작업을 하러 왔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전선을 집 밑의 작은 공간에 묶어야 했습니다. 그 공간은 어른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그 전기 기사가 이 소년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전선을 잡아당겨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일을 하자 전기 기사가 오백 원을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 주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00원은 너무 많아. 다시 가서 그 아저씨에게 100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려.”

물론 그 어머니는 단지 그 전기 기사에서 공정하게 행하려고 했을 따름이지만 그 남자가 3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하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어머니가 “500원은 참 큰 돈인데. 아마 그 아저씨가 네가 일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신 것이 틀림없구나.” 또는 그 경험을 활용하여 봉사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할 때 훌륭한 느낌이 드는 것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어린이의 자부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키워 줄 것입니다.

6. 자녀와 함께 훌륭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상적으로 말하면 가족 가운데 모든 어린이가 각자 매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각각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대가족일 경우에 이런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유익은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때로는 집을 떠나야 하는 활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싸고 값진 선물을 사 줌으로써 보상하려

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캠핑, 낚시, 장보기, 축구 시합 구경, 자동차 씻기, 정원의 잡초 뽑기, 같이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는 등의 활동은 중요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는 것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셔. 우리 부모님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셔.” 이런 방법으로 자부심이 증진됩니다.

7. 훈련에 시간을 들임. 우리는 성인으로서 가끔 우리에게서는 알기 쉽고 단순하게 보이는 과제가 어린이에게는 혼란을 일으키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끔 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네 방을 청소해라.” 고 말하고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딸이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딸이 청소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어머니가 결코 딸의 노력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감을 느끼도록 부모가 순서에 맞추어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혼자서 자신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자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명된 일에 대한 자신감은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만 15세의 캐롤은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선생님은 “어리석습니다.” 이웃 집의 어린이는 “이상합니다.” 부모님은 “한번도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으시

며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는 대화하는 중에 자주 어리석다, 바보다, 떠분하다 는 말을 씁니다. 그녀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다른 어린이들이 그녀를 피합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캐롤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까요? 다른 사람과 자기 세계에 대한 그녀의 부정적인 견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빈약한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과 좋지 않은 태도는 비판과 배척을 초래하여 그렇지 않아도 낮은 그녀의 자부심을 더욱 낮게 만듭니다.

9. 자녀가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찾고 약점에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던은 날 때부터 오른 팔이 아주 나약해서 거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 팔을 써야 하는 체육 활동을 회피하는 일은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되도록 버려 둔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그의 장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마 진지하게 “무슨 장애 말씀이신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던은 골프와 야구와 농구를 하며 매우 훌륭한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의 바른 팔은 처음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만 문제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일단 그를 알면 그의 장애를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간부이며 친구도 많습니다. 던의 부모님은 결코 그의 “장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자부심과 유능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릇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이 행하는 일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어린이는 조용한 가운데 확실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자녀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찾도록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행동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가 때때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아이구, 이번에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정직은 자신의 자부심이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상을 해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도 그들과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약점을 대범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든다. 정말 이 일이 잘 됐어.” 라고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는 태도를 배우고 따라서 자부심을 쌓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터놓고 표현하십시오. “네가 정말 좋아.”라는 단순한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서 말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네가 정말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거북할 수도 있으며 또는 자녀가 그런 표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경험만큼 자부심을 쌓는 데 공헌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녀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껴안아 주고 뺨에

키스해 주며 “네가 정말 좋아.”라고 말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일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인생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해줄 자부심을 쌓으려면 자신이 사랑스러우며 유능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열 가지 제언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따른다면 우리 자녀의 품행이 개선되고 그들의 자부심은 틀림없이 증진될 것입니다. *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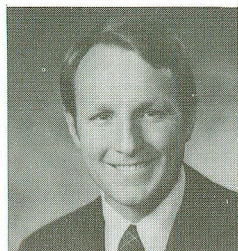
“자녀가 자신을 좋아하게 해줌”을 읽은 후 다음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다.

1. 높은 자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자신이 사랑스럽고 유능하다는 느낌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2.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복음 지식은 어떻게 우리의 자부심을 증진시켜 줄 수 있나?

3. 자기 자녀에 관하여 생각하면 자부심이 낮다는 표시를 볼 수 있나?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가 그들이 자신에 대한 견해를 개선하는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나?

4. 자신의 자부심을 평가해 본다.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자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독을 만나야 하며 또 무엇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와 가정 복음 교사와 상의해야 합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비 잭슨 워섬 이세
교회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 위원

가정 복음 교사와 정원회 회장과 감독은 실제로 모든 필요한 부분을 돕는 합동 지원 체제를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족과 교회 회원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들 형제들 가운데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역할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정 복음 교사의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정원회 회장 및 정원회 회장을 통하여 감독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멜기리덱 신권 지침서 참조) 그는 정구적으로 자주 가족과 접촉하며 가족의 지도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적절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신권 지도자로부터 지명된 주제를 토론하는 이외에도 방문할 때 그 가족의 상황

에 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와드나 정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지 또한 그들의 태도와 영적인 수준을 주시해야 합니다.

가족이 가정 복음 교사를 환영하고 필요한 시기에 그들의 도움에 의지할 때에만 가정 복음 교사가 정말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사고나 화재나 심한 병이나 사망이나 기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도움을 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에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편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선교 사업, 계보 사업, 가족 예비 프로그램, 기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또한 취직 문제, 활동 촉진, 침례, 결혼,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회원과 연락하는 일 등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도와 줍니다. (가정 복음 교육 지침, 1페이지) 가정 복음 교사는 가족이나 개인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권능을 지닌 사람이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감독과 정원회 회장은 모두 관리 역원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와드의 관리 대계사로서 가장과 가족을 와드 회원으로서 관리합니다.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는 신권 정원회나 그룹의 회원으로서 아버지에게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모든 아버지를 가르치고 강화시키며 그가 자기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을 도와 줍니다.

이 두 직책 가운데서 정원회 지도자의 역할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할을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다.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를 관리하고 “저들과 더불어 회의의 열매를 맺으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교성 107 : 89) 독특한 책임을 경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책임이 오늘 날에도 똑같이 철십인 정원회와 대신권 그룹의 지도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의를 열며”라는 말은 이 신권 지도자들이 기능을 발휘해야 할 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정원회 회원과 함께 책임을 수행합니다. 회원들은 정원회 모임에 참석할 때 정원회 지도자가 함께 앉아서 훈련시키는 회의를 구성합니다. 정원회 지도자는 정원회 회원에게 그들의 가정과 가족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은 1973년 10월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신권 소유자를 강화시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정원회는 아버지를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정원회는 아버지가 자신의 의무를 배우게 해야 하며……참여하고 활동하고 책임을 맡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벨기세텍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1977-78년 [PCMP 60G80KO]참조)

정원회 지도자는 모든 토론을 직접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와 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가끔 토론을 인도하고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는 일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정원회를 정원회 회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활기차게 참여하는 의견 교환 모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조직된 정원회는 그 회원들이 정

원회 지도자의 잘 계획된 인도에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원회 지도자는 정원회 회원 각 개인과 상의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정과 자립을 가르칠 수 있으며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이 개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규적인 개인 신권 접견은 분명히 신권 지도자가 가정 복음 교사를 지도하고 그들이 그 가족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와 도움을 갖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1963년 가정 복음 교육 대표자 모임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모든 다른 면에서 서로 도울 수 있게 단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원회에 그런 단결 정신을 도입할 수 있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권 조직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모든 와드 회원을 관리합니다. 그는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 복지 봉사 위원회, 협의 평의회 회장이므로 와드의 모든 프로그램의 자원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광범위한 세상적인 필요 사항과 영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와드의 모든 자원을 잘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감독은 신권 지도력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판사”(교성 107 : 72-74)로 봉사할 특별한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범법자를 다루는 의무와 와드 회원들을 접견하여 신전 의식 및 기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연령의 회원이 개인적

인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믿음직한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감독과 정원회 회장의 역할의 차이는 다음 내용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감독과 기타 교회 프로그램과 자원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와 필요한 것에 관하여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는 와드 회원에 관하여 감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식의 근원입니다. 정원회 지도자는 가정 복음 교사와 직접적인 방문을 통하여 와드의 모든 가족의 필요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정원회 지도자가 와드의 자원을 이용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감독의 기능은 이러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정원회 회장 및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하여 와드의 가족에게 구체적인 권고와 인도와 목표를 줄 수 있습니다.

감독과 정원회 회장과 가정 복음 교사의 기능은 분명히 어떤 분야에서는 중복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한 역원이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독자적인 책임을 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 사람이 모두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수많은 회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와드 안에서 감독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감독과 그가 상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전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봉사에서 오는 기쁨은 감독의 시간을

정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또한 모든 다른 면에서
서로 도울 수 있게
단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원회에
그런 단결 정신을
도입할 수 있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권 조직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빼앗고 다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권 지도자들이 지금 감독이 끼여 제공하고 있는 사랑에 찬 봉사 가운데 많은 부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 복음 교사가 대부분의 경우에 접촉할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응답하고 도움을 주는 가운데 정원회 지도자와 감독에게 보고하여 합동 지원 체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공책 한 권을 들고 삼촌인 레이콕 클라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서 오너라. 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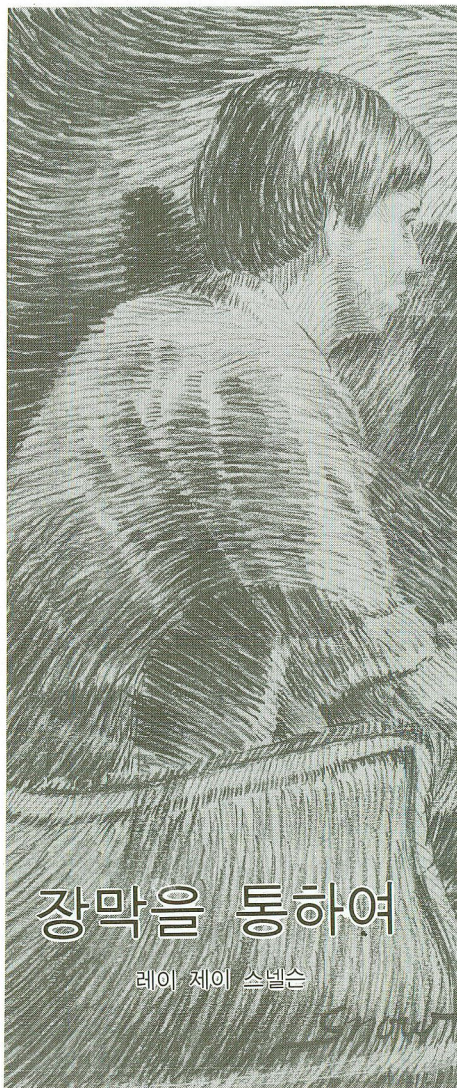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고 나로하여금 그것을 적게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왜 공책을 갖고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그의 가족의 역사를 4대까지 거슬러 가면서 이름, 날짜, 장소, 특별한 이야기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끝내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야, 이 내용을 잘 보존하는 임무를 네게 맡긴다. 언젠가는 너에게 이것이 필요할거야. 그날이 이르면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거야. 바로 그 때문에 이것을 네게 맡긴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나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동안 가슴 속으로 따듯한 느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그런 내용을 적고 보존하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2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년이 지났으며 나는 미시시피주 빌록시의 미 합중국 공군 기지의 레이더 기술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상적인 토론을 하는 가운데 교관 가운데 노먼 헤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말일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그날 낮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침대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그 교관의 숙소로 갔습니다. 그 때는 자정이 지난 때였습니다. 나는 노먼 헤일 교관의 문을 두



장막을 통하여

레이 제이 스넬슨

드렸으며 그는 침대에서 나와 반갑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론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일 교관과 그와 한 방을 쓰는 사람은 선교 지역에서 동반자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두 사람은 밤이 새

도록 나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신전, 계보 사업,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한 음성이 귀에 울렸는데 그것은 바로 할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가 주신 엄숙한 책임을 들었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으며 내가 배우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다음주부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1954년 10월에 침례받았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침례받는 것을 매우 언짢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결코 그에게 “물론 사상”을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그후로 10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나 복음을 가르쳤으며 침례를 주고 아이다호 폴에 있는 아이다호 신전에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으나 나는 약속을 지켰으며 아버지에게 한번도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너는 결코 그 이야기를 안하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었었습니다.

나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가 진지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서 좀더 알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조용히 있었었습니다.

아버지는 초초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야기하지 않겠니?”



나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해 오셨다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려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고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두 젊은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야, 그 훌륭한 두 젊은이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 네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침례받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지식을 알려 주는 토론일 따름이라는 것을 말해 주겠어요. 만일 그들이 어떤 면에서든지 아버지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나가라고 하겠어요. 또한 아버지께서 꽤찮으시다면 토론할 동안 그들이 약속을 지켜 아버지께 강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함께 참석하겠어요.”

아버지는 “좋아. 그렇지만 그들이 나에게 침례받으라고 강요하면 쫓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저녁에 부모님과 저는 함께 앉아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상식적으로 합당하며 그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기쁘기도 했고 약간 놀랐습니다. 두 번째 토론이 끝났을 때 우리 부모님은 모두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선교사들은 약속을 어기고 성령의 권고를 받아 처음에 안하기로 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침례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부친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주에 그 다음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요일에 나는 막내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눈물로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형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친구, 친한 벗, 동반자인 부친을 잃고 울었습니다.

일년 후에 우리는 아버지의 신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전으로 갔습니다.

신전 모임에서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행동했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훌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친을 그의 부모에게 인봉해 드리기 위하여 인봉실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제단 주위에 무릎을 꿇었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영으로 거기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신전장을 보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스넬슨 형제, 부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으나 그는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셨지요?” 아버지의 용모를 설명하자 신전장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인봉 의식이 끝난 후 그분은 나만 남고 모두 잠시 이 방을 나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방 옆으로 데리고 가서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형제님의 부친이 바로 형제님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울었으며 이번에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



그리스도와 창조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구와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창조에 관한 참된 교리를 믿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구원의 교리에 관한 이해는 참으로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전에는 우리의 것이 될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영의 자녀가 발전하여 그분처럼 될 수 있게 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이며 인간을 구원하고 승영으로 이끄는 제도로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영생 그 자체의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란 바로 **창조** **타락** **대속**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물질적인 창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기 전에 창조, 타락, 대속의 영원한 세 가지 진리가 어떻게 뻗어 없게 얽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셋은 모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분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하여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계시된 종교의 핵심입니다. 대속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에 온 육체적 및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해 줍니다. 우리의 축복 받으신 주님께서 직접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모든 인간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회개하는 조건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지

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깃세마베 동산과 골고다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불사 불멸과 영생은 대속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구속주의 속죄하는 권세의 영광과 경이와 무한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나 표현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속은 타락으로 인하여 왔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법에 대한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불사 불멸과 영생이 따르는 대속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이 오는 것과 똑같이 구원도 타락으로 인하여 옵니다. 필멸의 상태와 출산과 사망은 모두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에덴 동산의 집에서 쫓겨날 때 육신의 시험 기간의 시련과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존재하나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이 있고 이로써 우리는 불행과 괴로움을 맛보는 자가 되었느니라.”(모세서 6:48) 첫 어머니인 이브는 지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교리를 선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모세서 5:11)

또한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지구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에는 상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물은 타락하거나 변할 수 있게 창조되었으며 아버지의 영원하신 구원의

창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에 대한 이유를 모릅니다.



계획의 모든 방식이 작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존재물도 그런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맨 처음 물질적으로 창조된 것은 모두 본질에 있어서 기록했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에 모든 생명체는 현재 우리보다 높은 다른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닥쳐올 타락은 일단 좀더 낮은 상태로 그 다음에

는 진보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망과 출산이 세상으로 연결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왔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

리스도를 통하여 불사 불멸과 영생이 왔습니다. 리하이의 간결하고 감동적인 말을 보면 모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시련의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그때 그는 육체적인 불사 불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아직 죽음이 없었으므로 그가 영원히 살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들 시조는 또한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에” 그들은 필멸의 시험 상태와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이 두 가지 즉 사망과 필멸의 상태에서의 시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때가 참에 인간을 타락에서 구하시고자 메시아가 오시나니,”(니이 21-26)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앞으로써 이 지구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창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가 있음으로 타락이 가능했고 타락이 있음으로 대속이 가능했으며 구원은 대속으로 인하여 온다는 것을 앞으로써 창조에 관하여 계시된 지식을 올바른 견해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창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에 대한 근원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든 영광과 온전함과 완전함과 더불어 계시된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계시된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타락과 대속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하여 구원받을 후사가 되려면 믿고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서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창조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말일의 계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모든 일을 드러내시리니, 곧 지난날의 일이나,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감추인 일이나, 피조된 이 세상 일과 그 목적과 종말을 드러내리라.”(교성 101 : 32-33) 복천년이 올 때까지는 창조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창조 사업 및 구속 사업에 관하여 경전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그 주민의 이야기만을 네게 들려주노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세계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주민에게 구속주를 통하여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 : 33, 35, 39) 이것이 그의 사업이요 영광이라는 것뿐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 가운데 아마도 가장 영광스러웠을 시험을 통하여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라.”(교성 76 : 20, 23 - 24)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여러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의 무한한 대속을 통하여 그런 세상의 주민이 그분과 함께 후사로서 거룩한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이러한 시현과 은사로써 성도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하늘로부터 증거하는 한 큰 음성을 들었나니 그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라.

그분에 의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늘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회전하는 모든 것까지 창조되었나니

그주민들도 역시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우리 구세주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서서 난 아들과 딸도 물론 똑같은 진리와 권세에 의해서 구원받느니라.

(밀레니얼 스타, 4권, 49-55페이지. 물론 교리, 제2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66페이지 인용)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써 창조와 구속의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끝없는 사업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진리의 한 부분을 알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창조”에 관한 진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진로를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전세에 있던 수많은 “고귀하며 위대한 자”의 무리

를 살펴봅시다. “이들 중에 하나님 같은 신 분이 서 계시더니,” 그분이 위대한 여호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미가엘과 수많은 용감한 영혼의 무리에게 이렇게 이르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아브 3 : 22, 24) 또한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우리의 이해력이 하늘에 닿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의 자녀의 미래의 가정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잘 조직된 사업입니다. 다른 고상하고 위대한 영들은 모두 자신의 직분을 다합니다. 지구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참으로 원소는 영원한 것이며 창조란 이들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출 20 : 11) 이제 우리가 말할 것은 이 “옛새 동안”에 일어난 창조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화된 어떤 시간의 단위입니다. 이것은 영원의 한 세대, 한 영겁, 한 구간입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길이가 어떻든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입니다. 한 가지 측정 기준은 한 천체가 그 축에서 한 바퀴 돌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주의 계산법으로 하면”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

인간은 타락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타락하여 필멸과 출산과 사망을 가져 왔습니다.



이 “코롭의 일 회전”이며 “주의 계산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 3:4) 창조에 사용된 “육일”이 각각 똑같은 시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사가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창조에 관한 우리의 세 기사는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와 신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의 기사는 창조가 똑같은 연속적인 날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경전의 말씀대로 좇아야겠습니다. 신전에 관한 기사는 그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분명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 연결되고 있습니다. “육

일"은 계속되는 기간이며 연속적인 사건 사이를 구분하는 선을 반드시 그어야 할 지점은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신전에 관한 기사는 물질적인 창조, 즉 물질을 유형의 형태로써 실제로 조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영적인 창조의 기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는 창조 사업을 실행한 거룩한 사람들의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육일" 동안의 사건을 말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로 서로 의논하실 때에 결정하신 일이 이러하더라."(아브 5:3)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실제로 창조에 관한 기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날에는 엘로힘, 여호와, 미가엘 및 고상하고 위대한 영의 무리가 모두 자기 직분을 했습니다. "하나님들"이 대기의 하늘과 물질적인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이 공허"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인간의 구원에 관련하여 아무 목적으로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하며 황폐하였"습니다. 아직 그 표면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이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수면"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까지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빛과 어두움이 나뉘었습니다. 빛은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흑성은 회전체로서 그렇게 형성되어 태양과 그런 관계를 갖고 배치된 것이 분명합니다.(모세서 2:1-5, 아브 4:1-5 참조) 둘째 날.....이 날은 "물"이 땅의 표

면과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의 하늘 사이에서 "나뉘어"졌습니다. "궁창" 또는 "하늘"이라 불리는 "공간"이 창조되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나뉘었습니다. 창조하는 일이 이렇게 나타났으며 구름과 비와 폭풍이 지구 위에서 자라고 거할 것에 생명을 주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모세서 2:6-8; 아브 4:6-8 참조)

셋째 날.....이 날은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며"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땅을 "육지"라고 했으며 물이 모인 것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여러 하나님이 땅을 조직하사"풀과 채소와 수목과 나무가 나오게 한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온갖 종류의 식물이 창조주께서 심으신 씨앗으로부터 실제로 나온 날입니다. 풀과 수목과 나무가 "그 씨"로부터만 자라고 각 종류대로 그 "종류의 것"만 낼 수 있게 하는 명을 내린 날입니다. 그리하여 수목과 식물의 왕국의 경제가 다양한 수목과 나무를 만든 분들의 손에 의해서 설정되었습니다.(모세서 2:9-13; 아브 4:9-13)

넷째 날.....온갖 종류의 씨앗이 지상에 심겨진 이후, 이런 씨앗의 싹이 트고 자란 이후, 각종 식물이 그 종류에 따라 과일과 씨앗을 맺을 준비를 갖춘 이후 창조주께서는 지상의 정원을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조직하셨습니다. "여러 하나님이 하늘의 공간에 빛들을 조성하시며" "시절"이 있게 하시고 "날"과 "해"를 측정할 방법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 기간에 해와 달과 별이 지금과 같이 지구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빛이 새로 창조된 지

구를 감싼 안개가 걷히는 것을 뚫고 비치기 시작하여 곧 새 세계에 거하게 될 모든 형태의 생명체와 관련하여 그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서 2:14-19; 아브 4:14-19)

다섯째 날……다음에 물고기와 새 및 “물”에 사는 “모든 생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창조주가 그들을 새로 조직된 땅 위에 두시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끼를 낳아 번성하게 하고 바다 곧 큰 물에 가득하게 하고 땅에 새를 번성케 하리라.” 인간에게 주어지고 모든 동물 생명체에 적용될 수 있는 계명과 비슷한 이 계명을 당시에 그들은 지킬 수 없었지만 곧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번성하라는 이 계명에 물에 있는 생명체는 “그 종류대로” 만나고 “날개 가진 새들도” 모두 “그 종류대로”만 날 수 있도록 하는 하늘로부터 온 제한 사항이 덧붙여졌습니다. 한 종류로부터 다른 종류로 진화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모세서 2:20-23; 아브 4:20-23)

여섯째 날…영광스러운 창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위대한 창조주들께서 이 날 이른 시간에 “땅으로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어 다니는 것과 땅 위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출산의 제한이 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도 그 종류대로만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었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인간이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 인간을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고…… 여러 하나님이 내려가 인간을 그들

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의논한 대로 행하셨으며 모든 창조 활동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영광스러운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배”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그의 목적이 영원히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아 번성케 하며 땅을 충만케 하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온갖 생물을 지배하게 하리라.” “여섯번째 날”이 끝나매 창조주들이 만족감을 갖고 그들의 창조 사업을 둘러보시매 그들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모세서 2:24-31; 아브 4:24-31)

이것이 창조에 관하여 제시된 기사입니다. 우리가 요약한 것은 모세의 기사, 아브라함의 기사, 신전 기사를 합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의 기록에 있는 성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천지와 그 모든 만군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모세서 3:1-3 참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에 관하여 제시된 이 기록을 주셨을까요? 이 기록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에게 중심을 두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없는 계시는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들고

마음속으로 그 깊고 감추인 의미를 생각 하고 그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창조에 관하여 제시된 기사에는 두 가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일반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시험 기간 즉 모든 인간이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시험받는 이 기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 3:25) 구체적인 목적은 회복된 종교의 기초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6일” 동안에 일어난 일과 주님이 “제7일”에 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창조의 기사의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모세의 기사 제3장에 기록된 대로 계속해서 창조의 목적과 본질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에 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는 참된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몇 가지 사실과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역사적인 기사 안에 포함된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참된 의미를 알려 주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적인 서술이 아니라 그 연속적인 순서에서 그가 이미 행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육일”의 사건이 “나 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날 천지가 지음을 받을 때 천지가 창조된 때라”(모세서 3:4)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창조에 관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만물의 창조는 이루어졌습니다. 대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모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진리가 전달될 때야야 사람들이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은 만물의 전세에서의 존재와 또한 지구 및 모든 창조물이 처음으로 창조주의 손으로부터 나올 때의 거룩한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모두 똑같은 문장에서 서로 혼합되어 있으며 때로는 사용된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또한 전세에서의 생명과 거룩한 창조 두 가지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가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창조하셨으며 “나 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자녀를 지었으며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는 내가 저들을 하늘에서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서 3:5) 분명히 그는 만물의 전세에서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구, 모든 인간, 동물, 고기, 조류, 식물, 만물은 모두 처음에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하늘이었으며 지구는 그들이 필멸의 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소로써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이 말한 바 모든 것을 지면에 물체로 두기 전에 영체로 만들었음이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영의 창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뜻에서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말씀이 뒤따라 옵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이 아직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음이라……땅이나 물 속이나 공중에도 육을 가진 자가 없었음이라. 그러나 나 주 하나님이 말하니,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모세서 3:5-6) 여기에서 주님은 그가 말씀하신 사건, “6일” 동안의 사건, 모세서 2장에서 제시하는 육체적, 유형적, 또는 물질적 창조의 기사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게 만드신 것이 “영적으로” 창

조되었으며 열거하신 이유로 인하여 “지면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개조 제10조를 인용해야겠습니다. 우리는……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즉 처음에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이것은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복천년이 시작되면 땅이 다시 영광스러운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의인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이 없으므로 슬퍼하는 일도 없을 것”(교성 101 : 29)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의 창조는 해의 영광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세상에는 죽음과 필멸의 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지상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필멸의 육신이 없습니니다.

창조는 지나갔으나 우리가 아는 필멸의 상태는 앞으로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사 불멸의 상태로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리하이는 바로 이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형상대로 남았을 것이요, 영원을 두고 끝이 없이 그 상태로 남았을 것이다.”(니이 2 : 22) 만약 사망이 없다면 필요한 모든 것이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에 관한 기록하신 말씀이 계속되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고 땅 위에 첫 육신 곧 첫 사람이 되었더라. 만물은 이전에 지음을 받았으니 내 말에 따라 영체로 지음을 받았으니라.”(모세서 3 : 7)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아

담의 육신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표현하였 듯이 그분의 “영”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 5 : 7 참조) 인간은 살아 있는 불멸의 영혼이 됩니다. 육신과 영이 함께 결합됩니다. 아직 필멸의 육이 없으므로 그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필멸의 육신과 출산과 사망이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필멸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필멸의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땅 위에 첫 육신”(모세서 3 : 7)입니다. 또한 그의 타락의 영향은 모든 창조물에 미칩니다. 그들도 필멸의 상태가 되어 타락합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필멸의 상태가 지배하고 출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이 진전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늘에서 영체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지상에서 해의 영광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아직 사망이 없었으므로 “영체로 지음을 받았”(모세서 3 : 7)입니다. 그들은 사망이 시작될 타락 이후에 받을 필멸의 육신과 구별되는 지구의 물질로서만 들어진 영적인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육신은 자연적인 사망을 겪습니다. 해의 영광의 속성을 지닌 영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 타락과 필멸의 육체와 사망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나 주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한 정원을 창설하고 내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모세서 3 : 8) 우리의 아버지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그는 그가 창조되던 시기에 모든 인간의 첫 인

간이었으며 타락을 통하여 모든 육신의 첫 육신이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만물이 영적인 상태로부터 육적인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모든 아름다운 모든 나무를 자연으로 땅에서 자라게 하니,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더라. 이것 또한 생령이 되었더라. 이는 내가 이를 창조하는 날에 영으로 있었음이었요,”(모세서 3:9)

이런 것 가운데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사는 “모든 나무”와 “만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는 이런 것을 하나의 집합체로 보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모든 세계 곧 인간이 이용할 것을 마련해 주려고 모든 것을 지은 그 세계에 그대로 남아 있었음이니, 사람이 보매 이는 식물로 좋은 것이더라.”(모세서 3:9)

창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짓고……그것들도 생령이니, 이는 나 하나님이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었음이었요,”(모세서 3:19) 또한 상징적으로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날에는 ‘사망이나 필멸의 시험의 경험’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저들 곧 남편과 그의 아내가 다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모세서 3:21-25)

타락 그 자체에 관해서 보면 주님께서 동산 한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었”(모세서 3:9)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이런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그러나 내가 네게 금하였음을 잊지 말지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임이라.”(모세서 3:16-17) 여기에서도 이 기사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취한다는 말은 우리의 첫 조상이 그들의 육신이 거룩한 불사 불멸의 상태로부터 육의 필멸의 상태로 변하도록 마련된 어떠한 율법이든지 이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서 4장에서는 실제 타락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지구가 저주를 받고 가지 덤불과 엉켜 버린 내기 시작합니다. 즉 지구가 지금의 자연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이브는 “모든 산 자의 어미”(26절)가 되었으며 그녀와 아담이 “아들 딸”(모세서 5:3)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의하여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타락하여 필멸과 출산과 사망을 가져 왔읍니다. 또한 그는 불사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담의 타락에 의하여 세상에 온 육체적 사망으로부터 속죄받았읍니다. 창조와 타락과 대속은 하나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에 관하여 계시된 이 진리는 세상의 많은 추측 및 이론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감 받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이 지구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창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알아야 할 무한한 진리에 견주어 볼 때 보잘것없고 거의 하찮은 한 부분일 것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적인 지체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필

요한 만큼 창조의 신비에 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의 참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와 인간을 제외한 지구 위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구속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구와 모든 것이 타락할 수 있게 영광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타락의 영향



으로부터 대속하사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속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대속은 영원한 세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을 창조주이며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



사가 되어 그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을 모두 상속받을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의 원형 건물에서 있는 베르텔 도발드슨의 그리스도상의 대리석 모조품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창조주이며 구속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의 한 가운데에서 창조주께서 훌륭한 대리석 상으로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둥근 천정과 에워싸고 있는 벽에는 하늘과 조직된 우주를 통하여 움직이는 끝없는 구체의 그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보면서 한정된 면으로나마 창조의 기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병자를 고치고 축복을 준 축복된 손과 그의 손으로 만드신 지구의 먼지나는 길을 걸으셨던 발 위에서 못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속이 되었다는 표적으로써 피와 물이 나온 창으로 찢린 옆구리의 깊은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정된 면에서나마 구속의 기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경이로운 것을 생각하는 동안 그 사랑이 많으신 얼굴에 시선과 생각이 멈추며 펼친 팔의 부르시는 권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리석의 훌륭한 모습이 생명의 숨을 쉬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 : 6)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를 창조주요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왕국을 상속받을찌어다. 와서 나와 하나가 되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

시간이라는 덧

일루이즈 벨

교회 모임이 끝났는데도 와드의 모든 사람들은 남아서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특히 어른들은 키티에게 다가가 축하를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기다리지도 않고 예배당 뒷문으로 빠져나와 집까지 돌아가는 길을 택해 걸었다. 그렇게 해야 그녀는 집쪽으로 걸어오는 동안 교회 회원을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이층 자기방에 올라가려 했으나 계단에 첫발을 올려놓자마자 아버지가 손에 일요일자 신문을 들고 작은 방에서 나오셨다. 키티와 아버지는 그 작은 방을 “은신처”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사나 지부장단 그외 교회 회원이 찾아올 때면 거기에 숨는 시늉을 하곤 했다. 사실 키티는 아버지가 교회일로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잘 하시며, 선교사들에게도 대단히 친절하다고 생각하였었다. 지금 그녀는 감정이 폭발하기 전 아버지를 피해야 하는 보다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안녕, 애야!” 아빠가 말씀하셨다. “어떻게 됐니? 네 어머니가 말하길 오는 년 여왕별인가 무언가 된다고 하던데.” “아, 아빠! 그건 여왕별이 아니라 쾰벌반 회장이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제대로 아시지 못하신단 말예요! 더구나 저는 그것에 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방에 들어가 그녀는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자 뜨거운 눈물이 새어 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울기 시작했을 때 앞 현관으로부터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키티야? 안녕, 키티, 키티!”

그녀는 창문으로 갔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미가 있었다. 앞 현관에 있는 그베를 타고 앞으로 밀면서 그녀를 보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태미, 난 지금 놀 수 없어 알겠니? 지금은 안돼.” 그러나 그녀의 사촌은 계속해서 그베를 타며 웃으면서 그녀를 불렀다. 큰 손으로 단단히 그베를 붙잡고 오동통한 다리로 그베를 앞뒤로 흔들면서.

화가 나서 키티는 아랫층으로 쿵쿵거리며 내려가 앞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태미야, 나는 지금 놀 수가 없어. 집에 가, 집으로 가란 말이야, 그리고 나를 혼자 좀 있게 해줘, 그러지 못하겠니? 아무도 나를 혼자 있게 하지 못할까?” 눈물이 이제 줄줄 흘러내렸다. 키티는 앞 현관 계단을 내려가 마당으로 달려갔다. 몸을 돌리면서 그녀는 흐릿하게 태미의 의아스러워하는 얼굴을 보았었다. 그녀는 되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것은 멀리하고 싶은 것 뿐이었던

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셔서 팔로 태미를 감싸 부드럽게 안아 어깨를 두드리며 그 아이를 앞길 쪽으로 데리고 내려가 그애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 키티는 몸을 돌려 헛간 쪽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보기에, 적어도 외양으로는 헛간이었다. 안에서 보면 그것이 분명히 헛간이 아니며 한번도 헛간으로 쓰인 적이 없던 곳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한쪽 끝으로 아름다운 채광창이 있는 화실을 가지고 있으며 서쪽 벽을 따라서는 그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그림들을 걸어둔 작은 화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녀의 아빠는 잘 정돈된 작업대를 가지고 있는데 삼나무 대패밥과 와니스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키티에게는 지붕 아랫방, 소꿉장난을 하고 혹은 재미난 책을 읽는 장소,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좋은 혼자만의 장소를 가져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일기를 쓰고, 가장 친한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누구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마음 편한 장소.

하지만, 오늘 그녀의 다락방은 그녀를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그녀를 위해 새로 칠을 해주신 오래된 책상 위를 쳐다보았다.

오랫 동안 내버려 둔 일기장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읽으리라고 엄숙히 맹세했던 낡은 동키호테 책이 한권 있었다. 그녀는 한쪽 벽으로 걸어가 액자에 든 사진을 잠깐 들여다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목아래 형벌어진 마르고 작은 소녀가 모두 작은 트로피를 들고 수영장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 잉크로 “태드포울의 첫번째 우승.”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누군가가 오는 것을 알리려고 큰 소리를 내면서 헛간으로 들어

왔다. 키티는 빗자루 손잡이로 다락방 문을 정중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초대가 없이는 다락방 사닥다리에 한발짝도 올려놓지 않으려 하였다.

“키티야, 올라가도 좋으냐?”

“하지만 아빠께 말씀 드릴 게 없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송해요.” 그녀는 정말 그랬다. 제니가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다 얘기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키티는 항상 무슨 일이든 아버지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들어봐, 키티야, 너 거기서 듣고 있니?”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셨다.

“네, 물론이에요!”

“그래, 나는 지금 널 억지로 방해하거나 어떻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내가 올라가도 좋겠니?” “우린 얘기할 수 없어요. 아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도록 해다오. 좀 올라가도 좋겠니?”

그녀는 만약 대답을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는 달이 뜰 때까지 정중하게 간청하며 거기에 서 제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락방 문을 확 열어 젖히고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녀는 작은 소파로 가서 앉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아버지는 곧 부서질 것 같은 낡은 흔들의자에 앉으시며 두 손은 배 위에 포개 얹고 한숨을 쉬셨다.

잠시 동안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키티나 아버지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침묵이었다. 그녀는 두 사

람이 이제까지의 것 중 가장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몇 해 전 그런 특별한 침묵을 서로 가질 수 있는 사람과만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교회에 관한 일이지, 그렇지?”

그녀는 망설였다. “저, 꼭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관한 일이지, 그렇지 않니?”

“네!”

“그리고 너는 너의 신앙심 없는 아버지에게 교회에 대한 나쁜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나와 얘기하지 않으려는 거지, 그렇지?”

“아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무도 아빠가 무신론자라곤 생각지 않아요.”

“정말?” 그는 키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그는 의자를 약간 흔들흔들 하더니 조금 웃어 보였다.

“키티야, 나는 네 엄마와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다. 네 아버지가 된 것이 13년 동안이고 제니를 가진 것이 11년 동안이다. 너의 외삼촌 킨과 나는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고 그는 두번이나 감옥을 했지 않니. 너희 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리고 사람이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역시 알고 있을거라고 너는 생각지 않니?”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키티는 그 침묵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단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다.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저는 열 세 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 해요, 그리고 첼로 연습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학교의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수영부에서도 활동해야 하고 그리고 태미와 함께 지내면서 장애인 올림피아에 나갈 준비를 시켜 줘야 하는데다 정원일을 더 해야 하고요, 우리는 모두가 정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기를 계속해서 써야죠. 우리는 모두 일기장을 가져야 하니깐요. …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좋아해요. …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 그리고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야 한다고 해서 저는 올해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할 모든 모임에 갈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와드의 모든 활동을 도우면서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지요. … 그리고 이제 나는, 더 많은 모임에 참가해야하는 끝없는 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아, 아빠. 저는 그 모두를 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것은 모두 다 의미 있는 일이고 저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한 다 해도 13살이라는 나이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고등학교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곳 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대학이 있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족이 생기고… 아빠, 저는 늙을 때까지 이 일의 끝을 볼 수가 없을거예요. 신전 의식 사이의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늙은 여자!” 키티는 베게 위에 펄쩍 었드렸다.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 다음 번엔 더 큰 일을 맡긴다 이거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키티는 베게에 파묻혀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점점 더 처지게 된단 말이지?”

다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무리 네가 모든 것을 잘 하려 해도 아무것도 네가 원하는 꼭 그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

키티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키티의 아버지는 여러번 자기를 헨리 데이빗 소로우와 같다고 말하여 왔었다. 그는 그의 생활에 거의 구속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직장에서나 그의 집과 뜰을 돌보는 데에 대단히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무슨 일에만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키티나 그녀의 어머니나 제니가 하는 것처럼 많은 것에 열중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말도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침내 키티가 말했다.

“엄마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넌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엄마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거야. 엄마는 할 수...”

“아, 하지만 아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엄마는 모든 걸 해요. 모두가 항상 내게 얼마나 엄마가 대단하신가를 말하거든요. ‘어떻게 너의 엄마는 그걸 할 수 있니?’ ‘어떻게 너의 엄마는 그걸 할 수 있니?’ 키티의 음성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저는 결코 어머니만큼 조지적이고 능력이 있지 못해요. 전 그렇게 해보려는 마음조차 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제게 물어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가 어떻게 그걸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에게 여쭙어 본 적이 있지?”

“아, 엄마는 단지 그렇게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라’든가 ‘계획을 세우라’든가 그런 것 말예요. 그건 엄마에겐 쉬운 일이죠.”

“엄마에게 쉬운 것이라면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바로 조금 전에 내가 네게 이야기 한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세요.” 키티는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아 두 팔을 가슴에 끼었다.

“엄마는 그 모든 일을 해요. 어떻게 모두를 할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 모두를 한단 말이지? 음? 그 모두를?”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는 흔들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다락방에서 계단 밑으로 쿵쿵 내려가더니 그의 작업실과 화실 사이의 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아빠, 무얼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잠깐 기다려. 여기 어디에 있었는데.....” 중얼거리는 대답이 들려 왔다. 무얼 찾고, 트렁크를 열고 닫는 소리가 더 들려 왔다. 그리고 그는 다시 손에 무언을 들고 계단을 뛰어올라 왔다. “이리와, 밝은 곳으로.” 키티는 창가로 다가갔다. “넌 이것을 기억하니?”

아버지는 그녀에게 흰 옷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그걸 손으로 집어 들었을 때 그것이 레이스 달린 작은 드레스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하얗고 많은 주름과 겹쳐 박은 장식이 있고 앞 가슴 부분에 빨강색과 푸른색 줄로 수놓여 있는 드레스였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음을 키티는 알 수 있었다.

“너는 천사같이 보였지.” 그녀의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때 너의

머리칼은 갈색이었고 이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 입고 흰 구두와 드레스에 있는 무늬와 같은 빨강색과 푸른색의 줄무늬가 있는—나는 거의 모두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흰 양말을 신었었지. 그건 부활절날, 초등학교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너는 제일 앞 줄에 똑바로 서서 모든 노래를 한 마디도 틀리지 않고 불렀단다—세살 짜리 네가 한 마디도 틀리지 않고 말이다—그리고 나는 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며 제일 뒷 줄에 앉아 있었다. 내 옆 자리의 두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까지 나는 쑥스러워 했었지. 아, 너의 어머니는 너무나 너를 그리고 그 드레스를 자랑스러워 했었다. 엄마는 그 드레스를 입고 있는 너를 찍느라고 필름 한 통을 전부 사용했단다. 그 사진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거야.” 키티는 더 가까이서 그 드레스를 들여다보았다. 아주 작은 바늘땀, 그중 많은 것이 손으로 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는 바느질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틀림없이 바느질을 하지 않지. 그 모두를 다할 수는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키티,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제니를 위해서 그리고 집을 위해 바느질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단다. 하지만 결국 그건 다른 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빼어 간다고 말했단다.” 그는 드레스를 그녀로부터 가져 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개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림 그리는 일은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랬지. 숨쉬는 일도 그만두지 않았고. 너의 엄마는 샘물과 같단다. 사

람들이 목을 축이러 오는 샘물 말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채워 주어야 하는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줄 게 아무것도 없게 될거야. 엄마의 그림은 엄마 자신이 새로워지는 하나의 장소란다. 너희 교회의 경전이 또 하나의 다른 장소고. 그리고 넌 너의 어머니가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을 약속하는 걸 들은 적이 있지?”

키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없지. 왜냐하면 그건 엄마와 나의 시간이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먹거나 혹은 드라이브나 산책을 하고 때로는 엄마가 나를 화랑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마를 하키 시합장에 끌고 가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우리들의 시간인 셈이지.”

“아빠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데 찬성하시나요?”

“그럼. 너는 일에서 좀 떠나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토요일 오후 같은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여기 누워 햇빛 속에 춤추는 먼지 알맹이들을 바라보아라. 비 속에 자전거를 타 보아라. 열세살 다운 일에만 친해지는 데 오후를 모두 보내어 보아라. 그러면 너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 일과 함께 하도록 하는 데 너그러워야 한다. 이르기 위해 나는 토요일에 정원에서 허드렛일을 면제해 주마.”

“아마 엄마는 바느질 외에도 많은 것을 중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일에 대해 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키티는 흰 드레스에 수놓여진 빨강과 파랑색 무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럼, 하지만 또한 많은 것을 계속하고 있지.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다. 엄마는 결코 그림 그리는 일은 그만둔다고 생

가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너의 음악 공부부를 중지한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키티는 놀라웠다. 수영, 합창, 독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 가운데 그녀의 첼로는 그 자체 특별한 세계에서 다른,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을까?

“이것 좀 봐, 키티야. 너는 두뇌와 재능과 비이기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동안 많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그 머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는가와 너 자신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태미를 예로 들어 보자. 너는 그 애를 위해 대단히 잘해 왔다. 너는 그 아이의 부모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애를 위해 해 왔다. 하지만 그 애는 너무 많이 네 시간을 빼앗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너의 사촌이며 같이 있고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그 애는 자기가 가능한 것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너의 그 머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키티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길 아래쪽에 태미의 집이 보였다. 그녀는 태미가 어머니를 도와 식탁을 차리는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키티가 도와 주기 시작한 후 그 애가 그 일을 혼자서 완전하게 할 수 있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를 기억했다. 그녀는 태미를 내던져 두고 싶지 않았다.

“제니!”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제니도 이제 충분히 컸어. 그 애가 태미에게는 좋을거야. 사실, 제니에게도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지 않게 되고 태미와 함께 일하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애. 난

그애가 알아야 하는 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제니도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네가 다른 지도자로서의 일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듯이 말이다.”

“꿀벌반?”

“물론이지. 그건 전적으로 새로운 도전이지…지진아인 너의 사촌 대신에 네 나이 또래의 많은 소녀 아이들, 하지만 너는 그것은 잘해 낼거야 키티. 나는 정말 네가 너의 엄마와 얘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내게 이러한 모든 일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많은 요령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쉬운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말아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어떤 것은 그만두어야 하고 어떤 것은 계속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절충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 너는 한 가지 일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배워 왔고 네가 줄 가장 중요한 것을 주어 왔기 때문이지. 태미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집 쪽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키티는 들었다.

“카릴? 키티? 두사람은 어디 있어요? 식사 해요!”

“가자, 키티야. 엄마를 기다리게 하지 말자.”

“좋아요. 아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와 많이 이야기해야 겠어요. 참. 조금 기다리세요.” 그녀는 창가로 달려가 정하게 개어 둔 작은 흰 드레스를 들었다.

“난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해요.” 그러고나서 그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조용히 휘파람 불며 그의 아버지를 뒤따라 계단을 내려왔다. *

봉사에의 부름

존 에이 트베트스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 ① 들에서 밭을 가는 동안 선지자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 ②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는 중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③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누구인가?
- ④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기도와 금식 후에 선교사로 부름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 ⑤ 양을 지키러 나간 사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⑥ 숲 속에 가 기도 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⑦ 생후 8일 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 ⑧ 밀을 타작하는 중 여호와와의 사자가 일하도록 부른 사람은 누구인가?
- ⑨ 유다를 대신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⑩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12대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해답

- ① 엘리사(열왕기상 19: 16-21)
- ② 사울(사무엘상 9: 1-10: 17)
- ③ 사무엘(사무엘상 3: 1-21)
- ④ 바울과 바나바(사도행전 13: 1-3)
- ⑤ 다윗(사무엘상 16: 10-13)
- ⑥ 요셉 스미스(요셉 스미스 이서: 12-20절 피리와 성약 107: 45)
- ⑦ 침례 요한(교성 84: 27-28)
- ⑧ 기도운(사사기 6: 11-14)
- ⑨ 맛디아(사도행전 1: 20-26)
- ⑩ 스펜서 더블류 컵블

뒤로 미룸

미카엘 브라이스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The page contains six sets of blank musical staves, each consisting of a grand staff with a treble clef on the top line and a bass clef on the bottom line. The staves are arranged vertically and are currently empty, intended for the piano accompaniment of the piece.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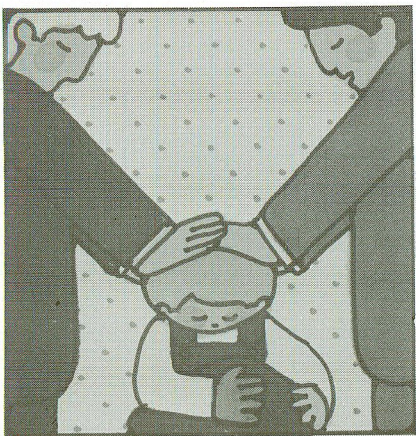
매릴리 바튼 클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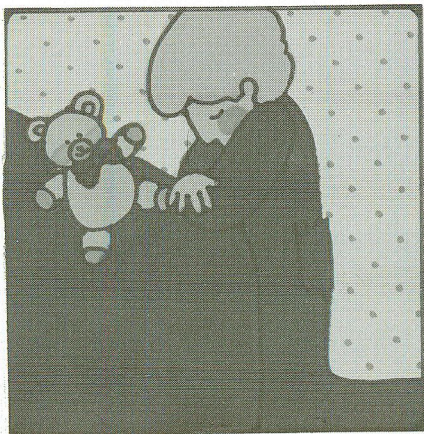
1.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다치거나 병에 걸립니다.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교회의 합당한 형제에게 하나님을 돕도록 신권을 주셨습니다.



3.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나 가정 복음 교사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4.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들의 축복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을 딱 잡았다. 그 아름다운 가족 표지로 된 책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선교사가 유타의 솔트레이크로부터 보내 준 것이었다.

패트릭의 당나귀인 플롭스는 매주 일요일마다 늘 하던 대로 오두막집 바깥에서 기다리며 서 있었다. 거세게 휘몰아치는 전형적인 아일랜드의 날씨도 그 당나귀를 도망가게 하지는 않았다.

모임이 끝나자, 패트릭의 아버지는 모자를 쓰고 나머지 가족들과 같이 서둘러 나왔다.

패트릭은 플롭스 옆에서 보다 천천히 집까지 걸어왔다. “넌 알지, 플롭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라고 그는 말했다. “틈과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

플롭스는 귀를 펠럭펠럭 흔들며 패트릭에게 눈을 껌벅거렸다.

“대답이 없어, 플롭스? 자, 어쨌든 우리 좋은 친구지. 네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며칠 후, 패트릭은 소가 으매하고 울고, 양들이 멍멍 울고, 닭들이 꼬꼬댁거리는 마을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플롭스는 그의 발뒤꿈치에 바삭 붙어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다. 그날은 시골 장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자기의 물건을 사고 팔려고 왔다. 패트릭은 그의 친구 톰을 찾아서 그에게 그날 저녁 지부 행사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인 아일랜드의 민속춤을 추려고 모여 들 것이었다. 톰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단계를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패트릭은 과일 노점상에 있는 톰을 발견했다. 그러나 갑자기 등에 가죽끈으로 큰 해초 바구니를 맨 미카엘 오브라이언이 길을 막았다. 패트릭은 미카엘과 그

의 해초 바구니를 피하여 머리를 내밀었으나 톰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패트릭은 얼굴을 찌푸리며 미카엘을 뒤돌아 보았다. 학교에서도 미카엘은 해초냄새를 은연히 풍겼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들많은 잡자 이랑에 거름을 주기 위하여 이른 봄에 해초를 모았다. 미카엘은 그것을 일년 내내 모아서 말려 공장에 팔았다. 묘한 느낌이 패트릭에게 들었다. 그러나 모른 척 했다. 아니다! 그는 분명히 미카엘을 지부 행사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 사실, 그는 미카엘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다. 미카엘은 자주 학교의 선생님들을 조롱하고 선생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면 웃어 버렸다.

완강하게 패트릭은 앞을 곧바로 쳐다 보았다. “플롭스, 가자. 미카엘보다 복음을 들으려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나 패트릭은 미카엘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플롭스를 마차에 매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말려 연료로 쓰기 위해 토탄을 캐러 구렁으로 가면서 그는 거의 생각치 않고 있었다.

“애, 너, 오늘은 조용하구나, 무얼 생각하고 있지?” 그들이 마지막 토탄을 그들의 집 옆에 내려 놓을 때 패트릭의 아버지가 물었다.

“아버지” 패트릭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는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도록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아버지는 속눈썹을 치켜 떴다. “왜 아니겠니,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미카엘 오브라이언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카엘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때때로 그 아이는 상스러워요.”

“그러냐?” 패트릭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착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증거의 조금밖에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패트릭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아마 너도 언제나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다. 네가 때로는 개구장이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이 복음을 갖는 것도 원하신다고 나는 확신한다.”

“기도하면 미카엘을 좋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 그의 아버지는 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걸 빨리 하는게 좋겠구나.”

패트릭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미카엘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썰물인 동안 해초를 걸으러 가는 길이었다.

패트릭은 용기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넌 할 수 있어.”

패트릭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소리쳤다.

“미카엘, 해초 모으는 걸 누가 도와줘도 괜찮겠니? 내가 그것 자르는 걸 도울 수 있어. 그리고 플롭스가 마차에 매어 있으니 그걸 네가 나르지 않아도 될 거야.”

패트릭과 미카엘은 미끄러운 바위에 덮여 있는 젖은 해초 줄기를 칼로 잘라냈다. 그동안 플롭스는 그들이 그의 마차에 물기 떨어지는 뭉치를 날라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한 시간 또 한 시간 그들은 바위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빗방울이 보다 세게 떨어지고 바람이 바닷소리를 삼켜버린 것을 알지 못했다. 플

롭스가 바람이 불고 차가운 비가 오는 것을 알았다. 밤이 되었고 조수는 밀려오고 있었다.

패트릭은 사나운 바람 너머로 외쳤다.

“미카엘, 그만 하는 게 좋겠어.” 그는 미카엘이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갑자기 기우뚱 하더니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패트릭은 그를 도우려고 서둘렀다. 미카엘은 숨을 헐떡였다. “내 발이 이 바위 사이에 끼었어.”

패트릭은 끈적끈적한 바위를 붙들고 그것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도 전혀 움직일 수 없니?”

미카엘은 애를 썼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파도가 이제 두 소년의 다리에까지 칠씩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패트릭은 괴로워했다. 불현듯 그는 말했다. “기도를 해야 해!” “기도?” 미카엘이 덜덜 떨리는 잇사이로 의심스럽게 되풀이했다. 그는 패트릭이 그렇게 싫어하던 조소하는 웃음을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멈췄다. “좋아.” 그는 조용히 동의했다. 패트릭은 그의 공포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 그는 마차에서 플롭스를 풀어 내어 좋아하지 않는 당나귀를 구슬려 미끄러운 바위 위로 끌어 내었다. 그는 밧줄을 바윗돌에 둘러 매고 그것을 당나귀의 마귀에 매었다. 처음에 플롭스는 끌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당나귀는 앞발로 다리까지 올라오는 물을 치며 성가셔 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자, 플롭스, 넌 항상 내 친구였지.”

패트릭은 당나귀를 부축였다. 플롭스는 귀를 흔들며 앞으로 나갔다. 바위도 역시 움직였다.

패트릭의 집까지 돌아오는 길에서 내



내 미카엘은 말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나는 너무나도 고요한 느낌을 받았어. 나는 단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만 알았단다.”

패트릭의 어머니는 벌벌 떠는 두 소년에게 김이 나는 쇠꼬리 국을 주었다.

“플롭스와 내가 무사히 너를 집까지 갈 수 있게 할거야, 미카엘.” 패트릭 아버지가 말했다.

미카엘이 절름거리며 문 밖으로 갔을 때 패트릭은 그의 물몬경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여기 이것을 가져 가. 너는 아마 그것이 읽고 싶어질거야.”

패트릭이 미카엘과 함께 해초를 뜯은 지 이 주일이 되었다.

패트릭은 플롭스의 마구를 쪼면서 왜 그 소중한 물몬경을 주었는지 생각했다.

“서둘러라, 패트릭.” 그의 아버지가 외쳤다. “우리는 오늘 많은 건초를 끊어

쌓아야 해.”

패트릭이 플롭스를 목초장 쪽으로 돌담을 따라 끌고 가고 있을 때, 그는 애기를 데리고 한 부인이 길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담 건너 편에 멈추어서 그녀는 수줍어 하며 말했다. “나는 패트릭 맥켄트리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패트릭입니다.”

“아, 나는 내 아들에게 그 책 물몬경을 주어서 감사하고 싶어요. 작년에 내 남편이 죽은 후 줄곧 나는 그 책을 찾고 있었어요. 오래 전에 어떤 이가 그걸 내게 주었지요. 그리고 나는 그걸 밀쳐 두었지요. 하지만 이 애기가 태어나기 바로 전 내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미카엘에게 모든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어요. 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유로 나는 단지 그 책을 다시 찾아 내어 읽어야 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그걸 가졌고 한결 나아졌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패트릭은 놀라 입을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여인은 잠시 있다가 팔에 안긴 애기를 추스려 올렸다. “한 가지 더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내게 교회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다음 일요일 패트릭은 두 선교사와 함께 미카엘 오브라엔의 집으로 갔다. 그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 패트릭은 놀라 숨을 들이켰다. 방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는 미카엘 옆에 앉아 속삭였다. “이 사람들은 모두 어디서 왔니?”

“더블린에서 온 내 사촌들이야. 매년 건초를 모을 때면 이들이 온단다. 그들 역시 너희 교회에 대해 듣고 싶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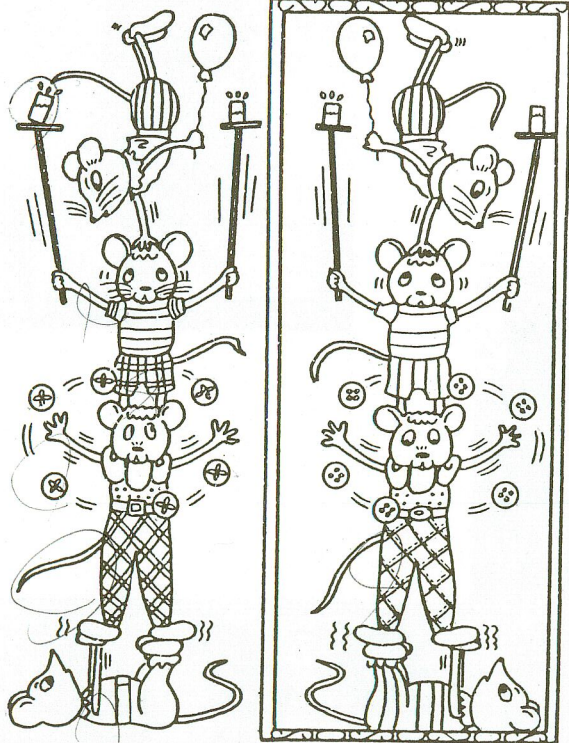
패트릭은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미소짓고 있는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그는 왜 하나님을 미카엘을 것처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패트릭은 그의 가족 장정의 물문경이 불타고 있는 벽난로 가까이 탁자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 다른 가족 장정의 물문경을 가질거야. 그는 이제 그의 첫번째 것을 준 것을 기뻐했다. *

거울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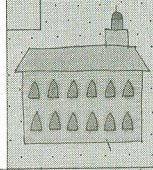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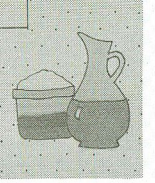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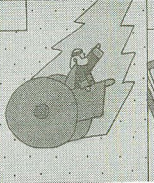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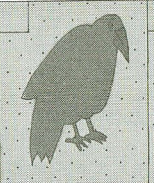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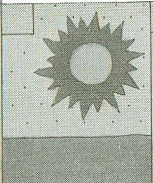
로버타 엘 페어를

액자에 끼워진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이 거울이 잘못 비쳐 주는 열 여섯 군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아의 기적 이야기

패트 그레이엄



보라,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교성 2:1, 2)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은 산 자나 죽은 자나 침례와 신권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오리라는 것이었다. 주전 900년경 엘리야는 땅과 하늘에서 인봉하는 힘을 가진 신권을 사용하는 열쇠 또는 권능을 가졌었다. 말일에 그의 사명은 바로 그 권능을 지상에 다시 가져와 계보와 신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지침 : 엘리야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 이야기에 맞게 그림에 번호를 매기시오.

시간을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

1.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순서로 그림을 배열하게 한다.
2.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게 계획한다. (특히 열왕기상 17-18장; 열왕기하 2장)
3. 아이들이 그림을 오려서 별지에 순서에 따라 그림을 풀로 붙이는 동안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 함께 토의하시오.

[그림과 일치하는 이야기 부분]

1. 백성들이 악하여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봉했다.
2. 한밤이 계속되는 동안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
3.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으며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4.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

하셔 소년은 다시 살아났다.

5. 엘리야는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믿기를 희망하면서 악한 바알의 제사장들과 다투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였다.

6. 엘리야는 걸옷으로 물을 쳐서 요단강을 돌로 나누었다.

7.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들리워졌다.

8. 기원전 400년경 예언자 말라기는 엘리야가 인봉하는 능력과 열쇠를 지상에 다시 보내리라고 예언하였다.

9.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다. 요셉 스미스에게 금판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 모로나이는 말라기를 인용하고 엘리야의 오심을 예언하였다.

10.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신전에서 엘리야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다.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가족들은 영원히 인봉될 수 있게 되었으며 죽은 자를 위한 계보와 신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교성 2:1, 2)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



강서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가 조직된 후 처음으로, 1983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6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신권 역원회는 120여 명의 신권 역원들이 참석하여 총관리 역원인 고마쯔 장로의 말씀을 들었고,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총회에서는 이 도환 스테이크 부장,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 그리고 고마쯔 장로의 말씀을 들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말씀한 연사들은 “모두 힘을 다하여 손수 일하라”는 말씀과 “죽든지 살든지 계명 지키기에 충실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살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였다. 특히 고마쯔 장로는 “선교 사업과 신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전에서 베풀어질 의식을 받기 위하여 복음대로 생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에서 신권이 승진된 형제들은 다음과 같다.

대제사 : 정 영민 형제(개봉 와드), 이성현 형제(신길 와드); 칠십인 : 양 호석 형제(부천 지부); 장로 : 허 정훈 형제(개봉 와드), 김 윤제 형제(부천 지부), 박 중언 형제(화곡 와드), 이 창희 형제(신월 지부). *